

국제기구 체험수기 공모전

양아름

마드리드 콤벨루펜세 대학교
중남미 지역학 석사 과정 재학

2011년 4월 16일

본 체험담은 외교통상부에서 추진하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프로그램 참가자로 선발되어 지난 2010년 9월 7일부터 2011년 3월 4일까지 6개월간 미국

워싱턴 소재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에서 경험한 인턴 생활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미주기구는 북미, 중미, 남미, 카리브의 35 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보유한 미주 내 최대 지역기구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존재로 인해 기구의 정당성이 끊임없이 비판되어 왔고 최근 독립적인 중남미 지역기구의 탄생으로 미주기구 존재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역내 가장 포괄적인 정치협력체로서 미주기구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미주기구는 중남미 내 민주주의 제도의 확산과 강화, 인권 보호 및 향상, 회원국간 분쟁 중재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현 사무총장(José Miguel Inzulsa)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조직의 쇄신과 회원국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턴 지원 및 합격

국제기구 채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미주기구 인턴 모집 공고를 처음 보았을 때 “이거다!”라고 혼자 소리를 질렀다. 대학교(이화여대)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며 중남미에 대해 관심을 갖게됐고 그렇게 시작한 국제관계학(바르셀로나 국제관계 연구소)와 중남미 지역학(마드리드 콤포스텔라 대학) 두 석사 공부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마침 졸업할 때가 되어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의 인턴십을 알아보고 있었고 “국제기구는 인턴으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는 한 친구의 말을 몸소 체험하고 있을 때였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지원한 서류는 다행히 서류전형을 통과했고 필기 시험과 면접을 거쳐 미주기구 인턴으로 선발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이전의 나의 인턴 지원은 마구잡이 식이었다. 빨리 인턴 자리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선 나머지 국제관계라는 넓은 개념의 전공을 개발, 인권, 인도적 지원 등 세분화 된 분야에 켜맞추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개발 분야 인턴 자리에 국제개발만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이가 지원했다면 내 이력서가 채택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반면 미주기구 인턴은 ‘중남미 지역학’과 ‘국제관계’라는 나의 전공이 외교부에서 제시한 자격요건 그리고 미주기구의 선호 조건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경우였다. 게다가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중남미 전문가가 되겠다는 나의 꿈과도 일치했다. 따라서 국제기구 인턴을 지원할 때 자신의 전문성이 무엇인지, 미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하고 지원하는 기구가 찾는 조건이 여기에 부합하는지를 잘 고려해야 한다.

부서 배치 및 주요 업무

인턴 선발 이후 나는 미주기구 국제부(Department of International Affairs)에 배치되었다. 국제부는 미주기구 내 모든 대외관계(회원국, 옵저버국, 시민사회, 기타 국제 및 지역 기구, 일반 대중과의 관계)를 관장하고 미주기구 주요 사업에 펀드를 끌어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서 내 주요 업무에 따라 옵저버 국가 및 시민사회 팀, 국제기구 팀, 아웃리치 팀으로 나누어 지는데 나는 아웃리치 팀 소속으로 미주기구 강연 시리즈(OAS Lecture Series), 미주기구 정책 회의(OAS Policy Roundtable)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두 프로그램은 미주기구의 4 대

현안인 개발, 안보, 인권, 민주주의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명성있는 연사를 초청하는 것에 주력하는데 인턴 기간 동안 OECD 사무총장,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사무총장, 미 국무부 중남미담당 차관보, 미주인권위원회(IACHR) 사무총장 등이 행사에 참가했다.

관련 업무는 미주 내 주요 문제에 따라 연설 주제를 탐색, 제안하고 그 분야 전문가 물색, 결정된 연설자에게 발송할 초청장 작성, 회원국 대사관과의 레종 업무, 행사 당일 사무총장 또는 해당 주제 관련 사무국장이 발표하는 연설문 작성, 당일 연설 요약 정리 등이었다. 그 외에도 국제부 국장 수행 업무 보조도 담당했는데, 국장의 업무 여행 준비, 브리핑 세션과 회의 준비 등이 주된 업무였다.

미주기구의 국제부는 정무가 주요 업무인 곳이다. 또한 미주 내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때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사무실과 함께 가장 빠르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제부 업무를 통해 미주기구 전반에 대해 배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협력체라는 특징을 지닌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전체적 업무 흐름을 경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기본을 지킬 것

처음 업무를 시작했을 때는 늘 꿈꾸던 국제기구에서 일하게 됐다는 설레임보다는 잘 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컸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딱 세 가지만 열심히 지키자고 주문을 걸었다: 성실할 것, 적극적일 것,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

먼저 인턴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했다. 그날 주어진 업무는 대부분 당일로 처리해서 넘겼고 시간을 요하는 일의 경우 수퍼바이저의 피드백을 최대한 적용시켜 일을 반복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특별한 업무가 없어도 15분 일찍 출근하고 15분 늦게 퇴근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두 번째로 늘 적극적인 태도로 업무에 임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아웃리치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이 적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이 때 나는 수퍼바이저를 통해 부서 내 다른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했다. 그 덕분에 국제기구 팀의 업무를 보조하며 국제기구 협력 파일을 작성했고 그것이 좋은 평가를 얻어 시민사회 팀의 업무까지 보조하며 부서의 펀드레이징 계획서를 작성하는 기회까지 갖게 됐다. 따라서 자신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고 부서업무에 흥미를 보이느냐에 따라 경험의 폭과 부서 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했다. 특히 처음 주어진 업무에서 최대 능력을 발휘하여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했다. 나의 첫 업무는 며칠 뒤 열릴 미주기구 정책회의에서 부사무총장이 발표할 연설문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처음 맡게된 업무가 부사무총장을 위한 연설문 작성이라는 생각에 부담도 되고 걱정도 됐지만 기존 연설문을 찾아보고 회의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가며 열심히 연설문을 썼다. 결국 완성된 연설문은 거의 수정되지

많은 채 발표됐고 행사가 끝난 후 국제부 국장으로부터 칭찬까지 받았다. 개인적으로도 무척 뿌듯했지만 첫 업무를 잘 해낸 덕분에 이후 맡게된 업무들에 중요성이 더해졌고 부서 국장과 함께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의사소통과정에서 수퍼바이저와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고 문서 작성을 하며 실수를 한 경우도 있었다. 다만 실수를 했을 때 실수를 인정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또 모르는 것이 있을 땐 동료나 수퍼바이저에게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인턴이 주어진 기간 동안 조직에 기여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듯 인턴 또한 그 기간 동안 배울 수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평범하다는 느낌이 들지도 모르나 기본적인 자세는 어디나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턴에게 처음부터 큰 업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료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한 기구 내에서 조직의 막내격인 인턴이 맡게되는 업무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본을 지키며 주어진 업무를 확실히 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생각된다.

현재 미주기구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아쉽게도 정식 채용은 되지 못했지만 부서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매우 만족한다. 또한 인턴기간 동안 인맥을 넓힐 수 있었고 나와 비슷한 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점도 좋았다. 인턴을 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중남미 전문가라도 그 안에서 더 특정한 전문 분야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턴을 마친 지금은 그러한 전문분야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렇듯 좋은 기회를 갖게 해주신 외교부 중남미협력과 분들께 감사드린다.